



2021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18세 에마 라두카누가 12일(한국시간) 뉴욕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욕 | AP뉴시스

345위→179위→150위→23위 라두카누, 테니스 세계랭킹 켄충

CNN "향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일 여자선수"

2021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에서 10대 돌풍을 일으키며 우승한 에마 라두카누(19·영국)가 세계랭킹 23위로 점프했다. 1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랭킹에서 종전 150위보다 무려 127계단이나 켄충 뛰어올랐다.

올해 초 345위였던 라두카누는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7월 윌블던에서 16강까지 오르며 세계랭킹을 179위로 끌어올렸다. 이어 12월 끝난 US오픈 여자단식에선 남녀를 통틀어 역대 최초로 예선부터 출발해 메이저대회 우승을 일구는 위업을 달성했다.

US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라두카누에 패한 동갑내기 레일라 페르난데스(캐나다)도 73위에서 45계단 상승한 28위에 자리했다. 애슐리 바티(호주)와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가 1, 2위를 유지한 가운데 오사카 나오미(일본)는 3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한편 CNN은 14일 라두카누가 전 종목을 통틀어 향후 10억 달러(약 1조1724억 원) 이상을 벌어들일 여자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US오픈 우승으로 250만 달러(약 29억3050만 원)의 상금을 챙긴 그가 스폰서 계약 등으로 돈방석을 예약한 것으로 전망했다. CNN에 따르면, 런던의 인재관리기관 인터탤런트그룹 조너선 샬럿 회장은 "라두카누는 2022년 한 해에만 1억 달러(약 1172억 원) 이상을 벌고, 남자선수들도 압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5년 최대 4억원 지원 마지막 접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인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을 마지막으로 시행한다.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한 '2021년도 제2차 학교연계형(한중목) 스포츠클럽 공모'의 접수기간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다.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은 이번 공모를 끝으로 종료된다. 대한체육회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제와 지정제가 도입되면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공익목적에 위한 사업별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스포츠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은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비롯해 인건비와 사업비 등 5년간 최대 4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은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이다. 현재 전국 199개(종합형 117개, 학교연계형 82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중국, 잇단 빙상 국제대회 취소...왜?

11월 열릴 ISU 시니어대회 이어
내년 1월 4대륙 피겨선수권 포기
코로나19 확산에 '안전' 택한듯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말 텐진에서 열릴 예정이던 4대륙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를 포기했다. 중국은 11월 초 충칭에서 열려던 피겨 시니어그랑프리 3차 대회도 취소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진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스포츠동아DB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이 빙상 국제대회를 줄줄이 포기하고 있다.

중국은 내년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텐진에서 치를 예정이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를 취소했다. ISU는 1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피겨스케이팅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여행제한과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개최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ISU는 다른 회원국에 같은 기간 대회 개최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는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ISU 주최 국제대회로 1999

년부터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돼왔다. 같은 기간 유럽피겨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선수들의 실전감각 향상을 이끌기 위한 성격의 대회다. 여자 싱글의 김연아가 2009년 캐나다 밴쿠버대회에서 금메달, 유영(17·수리고)이 2020년 서울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낸 바 있다.

지난해 서울대회는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렸다. 시드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

던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된 바 있다. 내년 4대륙 피겨선수권 대회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내년 2월 4일) 직전 예정됐던 터라 취소될 경우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SU가 적극적으로 대회 개최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앞서 중국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충칭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1~2022

시즌 ISU 피겨 시니어그랑프리 3차 대회 '컵 오브 차이나'의 개최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한 바 있다. 이 대회는 결국 같은 기간 충칭이 아닌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펼쳐진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델타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이동을 제한하고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슛 난조' 박찬희 부활 기다리는 DB 이상범 감독

득점 빼곤 나무랄데 없는 활약
"꾸준히 투입, 스스로 이겨내야"



이상범 감독 박찬희

원주 DB는 2021~2022시즌 준비 과정에서 대형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다. 팀의 확고한 득점원 역할을 해온 가드 두경민(30·184cm)을 한국가스공사로 보내는 대신 베테랑 포워드 가드 박찬희(34·190cm)와 장신 포워드 강상재(27·200cm)를 데려왔다. 강상재는 상무에서 군 복무 중으로 새 시즌이 한창 진행될 올해 12월 1일 제대해 DB에 합류한다. 리딩가드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DB는 박찬희가 다가올 시즌 즉시전력으로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박찬희는 13일 상주체육관에서 벌어진 '2021 MG새마을금고 KBL컵' 상무와 경기에서 DB 유니폼을 입고 선을 보였다. 27분 41초를 뛰며 2점에 그쳤지만, 어시스트를 12개나 기록했다. 리바운드도 4개를 잡아냈다. 득점을 제외하곤 나무랄데 없었다.

고질적 약점으로 꼽히는 슛은 여전히 흔들렸다. 박찬희는 상무전에서 15개의 필드골을 시도했다. 이 중 2점슛 1개만 적중시켰다. 3점슛은 10개를 던져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다. 정확성은 떨어졌지만 적극적으로 슛을 시도했다. 찬스가 나면 주저

하지 않고 슛을 했다.

박찬희의 필드골 성공률은 지난 시즌 37.3%, 2019~2020시즌 35%, 2018~2019시즌 36.2%다. 슛 난조가 장기화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박찬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상범 DB 감독은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 감독은 "슛 문제는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상무전에서도 4쿼터에 일부러 더 뛰게 했다"며 "KGC 사령탑 시절 박찬희와 함께 했다. 당시 이름값을 되찾게 돕겠다. 그 래야 선수도, 나도 산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이런 경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어려운 상황을 이겨야 한다. 20개도 좋고, 30개도 좋으니 제 타이밍에만 சொ라고 했다. 그 외에는 딱히 얘기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투입할 것이다. 심리적으로 이겨내길 기대하고 있다"며 박찬희의 슛 감각 회복을 바랐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오리온, KGC 꺾고 KBL컵 첫 승...'높이의 힘'

이승현 16점·7R-이종현 13점·8R
외인 없이 경기...오리온, 높이 우위



디펜딩 챔피언 고양 오리온이 국내선수간 맞대결에서 안양 KGC를 눌렀다.

오리온은 14일 상주체육관에서 벌어진 '2021 MG새마을금고 KBL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이승현(16점·7리바운드)과 이종현(13점·8리바운드)을 중심으로 한 높이싸움에서 앞서며 KGC를 89-79로 꺾었다. 오리온은 16일 수원 KT(1승)와 조 1위를 놓고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에서 각조 1위만 4강에 오른다.

오리온과 KGC는 이날 외국인선수를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다. 오리온은 머피 할로

웨이와 미로슬라브 라돌리차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한 채 관중석에서 동료들의 플레이를 지켜봤다. KGC 데릴 먼로는 13일해야 자가격리를 마쳤고, 오마리 스펀 맨은 아직 입국하지도 않았다. 미국에서 비자발급이 늦어져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오리온은 포스트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외곽슛이 잘 터지지 않아 경기를 원활하게 풀어나가지 못했다. 3쿼터까지 3점슛 23개를 시도해 3개만 성공시켰다. KGC 우동현(3점슛 9개 포함 31점)을 봉쇄하지 못해 3쿼터까지 시소게임을 펼친 오리온은 4쿼터 들어 이승현이 중심을 잡아준 가운데 조한진(7점), 김강선(13점)이 3점슛을 터트리며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덕에 승리를 낚았다.

최용석 기자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



오리온 이승현(오른쪽)이 14일 상주체육관에서 열린 KBL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도중 KGC 수비를 따돌리고 골밑 슛을 시도하고 있다. 이종현의 13점·8리바운드 활약을 앞세운 오리온이 89-79로 승리했다. 사진제공 | KBL